

# 2018년 경상남도 고용동향

2019. 2



# Contents

---

I. 조사개요	1
II. 요약 및 시사점	2
III. 경상남도 고용보험 피보험자 동향	4
1. 경상남도 고용보험 피보험자 현황	4
2. 경상남도 고용보험 자격 취득·상실 현황	10
3. 경상남도 고용보험 피보험자 경력이동 현황	14



# I. 조사개요

## 1. 조사목적

- 본 조사는 고용보험DB를 활용한 경남지역 사업장과 근로자의 규모별, 업종별 고용동향과 퇴직 후 이동경로 등을 파악해 지역의 고용 지원정책 수립에 참고 자료로 제공함을 목적으로 함.

## 2. 조사방법

- 고용노동부 고용보험DB를 활용한 분석
  - 고용보험DB는 고용보험 전산망 운영을 통해 축적된 행정 데이터로써 고용정책 수립, 평가 및 노동시장 동향 분석에 신속하고 세분화된 분석에 활용하기 용이함.
  - 고용보험DB 법적근거
    - 통계법 제18조(통계작성의 승인) 규정에 의한 국가승인통계 (고용보험통계: 승인번호 제327002호)
  - 피보험자의 포괄범위
    - 고용보험 가입자로서 계약형태가 ‘상용’, ‘계약직’인 근로자 단, 소정근로시간이 월 60시간(주15시간) 미만인 자, 국가·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적용을 받는 자 등은 적용되지 않음
  - 고용보험DB 이용 시 유의사항
    - 분기 중 최신 월의 통계는 잠정치 통계이며, 익월 발표시 확정치로 대체됨
    - 고용보험DB는 공공고용서비스 영역에 대한 전수행정자료이며, 포괄하지 않은 부분(자영업자, 미가입자, 구직급여를 받지 않는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 등)이 있으므로 이용 시 유의
    - 서비스업은 일용근로자 비중이 대체로 높아 전체 동향을 설명하는데 한계가 있음

## 3. 조사기간

2019년 2월 7일 ~ 2월 13일

## 4. 조사사항

-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규모별, 업종별)
- 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자수
- 고용보험 적용사업장 수(규모별, 업종별)
- 고용보험 상실자의 재취득 경로(지역별, 업종별)

## II. 요약 및 시사점

### ◎ 종합요약

- 경남이 2016년 이후 3년째 일자리를 찾아드는 지역에서 타 지역으로 일자리를 찾아 떠나는 지역으로 전환하였음. 순유출은 경기도로 가장 많았고, 전남, 충남, 부산으로 많았음.  
제조업 숙련인력 재취업 지원, 대규모 사업장 고용 모니터링 등 기존 경기악화로 인한 자연 일자리 감소분을 최대한 지역 내에서 소화할 수 있도록 돕는 일자리 전환 산업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경남 근로자 수가 전년 대비 2.9% 증가했음. 공공부문 일자리와 상대적으로 진입장벽이 낮은 숙박음식·도소매·사업지원 서비스 근로자, 특히 60대 이상 근로자 수가 큰 폭으로 증가했음. 이는 재취업 시장에서도 같은 모습임. 기대수명 증가로 일자리를 찾는 장년층이 증가하고 있는 것이 주된 요인이며, 이들은 많은 부분 정부가 제공하는 공공 일자리에서 일거리를 찾는 것으로 보임.
- 제조업의 실업급여 수급자 수는 감소했지만, 유동성이 높은 건설업과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실업급여 수급자 수가 크게 늘며, 경남의 실업급여 수급자 수가 10만 명을 넘어섰음.
- 장기·양질의 일자리 성격이 강한 제조업의 근로자 수와 취업자 수는 3년 연속 감소했음. 취업은 물론 퇴직 수도 급감했음. 고용 유연성이 낮은 제조업 특성상 신규 고용에 대한 수요는 감소하고, 경기침체에 따른 중장년층의 이직 성향도 크게 줄어든 탓으로 보임.

### ○ 2018년 경남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이하 근로자 수) 75만 7,117명, 전년 대비 2.9% 증가

→ 규모별 전 사업장 근로자 수 증가

(10인 미만 4.4%, 10인 ~ 99인 2.5%, 100 ~ 299인 2.0%, 300인 이상 2.2%)

### ○ 서비스업이 전체 근로자 수 증가 이끌어... 제조업, 건설업 근로자 수 감소

→ 서비스업 근로자 수 36만 9,549명, 전년 대비 7.7% 증가

-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 47.1%, ‘교육’ 11.3%, ‘보건업 및 사회복지’ 6.6%
- ‘숙박 및 음식점업’ 14.5%, ‘부동산업’ 14.2%,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9.9%
- 공공부문 일자리 정책과 제조업 퇴직자의 진입장벽이 낮은 서비스업 이동 영향

→ 제조업 근로자 수 33만 4,857명, 전년 대비 1.2% 감소

- ‘기타 운송장비’ -4.4%, ‘자동차 및 부품’ -2.9% 등 ‘기계장비’(+0.4%)를 제외한 주력 제조업 근로자 수 감소
- ‘기타 운송장비’ 2016년 -15.2%, 2017년 -23.4%에 이어 3년 연속 감소

- 30대(-1.3%) 근로자 수 감소, 60대(+15.9%), 70대 이상(+16.3%) 급증
  - 정부 공공부문 일자리 사업에 영향과 기대 수명 증가로 장년층 근로자 급증
  - 29세 이하 근로자 0.6%, 40대 0.2% 증가에 그쳐...
  - 여성 근로자 수 꾸준히 증가, 2014년 남녀비율 '66:34'에서 2018년 '62:38'
- 고용보험 취득자(취업자) 수 전년 대비 1.1% 증가한 39만 8,036명
  - 제조업 취업자 13.9% 감소, 서비스업 취업자 13.4% 증가
  - 제조업 취업자 수 4년 연속 감소
  - 비교적 장기간·양질의 일자리 성격의 제조업의 취업과 퇴직 모두 감소 추세 뚜렷해 고용시장 경직 우려
  - 고용 유연성 낮은 제조업 특성, 신규고용 수요는 감소하고 이직 성향도 줄어든 탓
  - 경력직 재취업 감소, 49세 이하는 전 연령대에서 감소
  - 조선업 구조조정 등 경남 고용쇼크가 본격화한 2017년 이후 이직 수 줄어
  - 30대 재취업 수 2017년 -11.6%, 2018년 -6.8%
- 실업급여 수급자 수 10만 명 상회
  - 2018년 실업급여 수급자 수 10만 767명으로 전년 대비 5.1% 증가
  - 연령별로 50대 실업급여 수급자가 가장 많고, 증가율은 40대가 가장 높음.
  - 업종별로 서비스업이 가장 많고, 증가율은 건설업이 가장 낮음.
  - 제조업은 6.4% 감소한 3만 5, 502명
- 2016년 이후, 경남 근로자 순유입에서 순유출로 전환
  - 2018년 경남 근로자 타지역으로 9만 8,993명, 타지역에서 8만 9,657명 유출입
  - 경남에서 타 지역으로 이직한 근로자  
부산 3만 843명, 서울 2만 2,513명, 경기 1만 2553명, 울산 6,250명 순
  - 타 지역에서 경남으로 이직한 근로자  
부산 2만 9,859명, 서울 2만 3,796명, 경기 9,027명, 울산 6,240명 순
  - 경남 근로자 유출입, 서울(1,283명 순유입) 제외한 전 시·도로 순유출  
경기 3,526명, 전남 1,239명, 충남 1,187명, 부산 984명 순으로 순유출
- 제조업 근로자의 타 산업 유출입
  - 제조업 근로자, 도소매·사업지원 서비스를 제외한 전 업종에서 순유출
  - 제조업에서 도소매 5,951명, 사업지원 3,743명, 보건업 3,652명, 숙박음식 3,175명, 공공행정 2,952명, 건설업 2,413명, 전문과학서비스 2,259명 이동
  - 제조업으로 도소매 6,119명, 사업지원 5,788명, 숙박음식 2,602명, 건설업 2535명 이동

### Ⅲ. 경상남도 고용보험 피보험자 동향

#### 1. 경상남도 고용보험 피보험자 현황

- 2018년 경남지역 고용보험<sup>1)</sup>에 가입한 상시근로자(고용보험 피보험자, 일용직 근로자 제외) 수는 75만 7,117명임. 이는 전년 대비 22,278명(+2.9%) 증가한 수입.
- 규모별로 상시 근로자 수 ‘10인 미만 사업장’이 21만 3,922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4.4% 증가했고, ‘10인 이상 100인 미만 사업장’ 29만 8,553명(+2.5%), ‘100인 이상 300인 미만’ 10억 9,891명(+2.0%), ‘300인 이상’ 13억 4,751명(+2.2%) 등 규모별 전 사업장군의 근로자 수가 증가했음.  
 ‘10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 수 5년 전인 2014년과 비교해 15.1% 증가해 증가 폭이 가파름. 같은 기간 ‘10인 이상 100인 미만 사업장’과 ‘300인 이상 사업장’은 각각 3.8%, 2.3% 증가했고, ‘10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은 10.1% 감소했음.

경남 규모별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2014	2015	2016	2017	2018
피보험자 수	727,471 (3.9%)	754,248 (3.7%)	747,714 (-0.9%)	735,839 (-1.6%)	757,117 (2.9%)
10인 미만	185,815 (1.1%)	196,670 (5.8%)	199,126 (1.2%)	204,971 (2.9%)	213,922 (4.4%)
10인 이상 100인 미만	287,646 (3.9%)	294,173 (2.3%)	294,875 (0.2%)	291,340 (-1.2%)	298,553 (2.5%)
100인 이상 300인 미만	122,294 (7.9%)	123,919 (1.3%)	116,235 (-6.2%)	107,698 (-7.3%)	109,891 (2.0%)
300인 이상	131,716 (4.5%)	139,486 (5.9%)	137,478 (-1.4%)	131,830 (-4.1%)	134,751 (2.2%)

<자료 : 고용보험DB, 고용노동부>

※ 연(年)말 상시(상용+임시) 근로자 기준, 일용근로자 및 임의가입 자영업자 제외

- 1) 고용보험 적용제의 근로자(고용보험법 제8조, 10조 및 령 제2조, 제3조)
- 65세 이후에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자(단,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은 적용)
  - 1개월 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
  -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의한 공무원, 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별정직 공무원 및 임기제 공무원의 경우는 본인 의사에 따라 고용보험(실업급여에 한함)에 가입할 수 있음.
  - 사립학교교원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자
  - 별정우체국법에 의한 별정우체국 직원
  - 외국인근로자(재외동포의 체류자격을 가진자 중 보험가입신청자, 영주의 체류자격을 가진자는 제외)

- 2018년 경남 전체 근로자 수는 증가하였지만, 제조업 근로자 수는 33만 4,857명으로 1.5% 감소했고, 서비스업 피보험자 수는 36만 9,549명으로 7.7% 증가했음.

경상남도 업종별 피보험자 수 동향

(단위 : 명)

	2014	2015	2016	2017	2018
전체	727,471 (3.9%)	754,248 (3.7%)	747,714 (-0.9%)	735,839 (-1.6%)	757,117 (2.9%)
제조업	379,377 (2.7%)	381,214 (0.5%)	363,098 (-4.8%)	339,844 (-6.4%)	334,857 (-1.5%)
서비스업	298,414 (5.6%)	321,837 (7.8%)	332,703 (3.4%)	343,153 (3.1%)	369,549 (7.7%)
건설업	34,613 (-0.9%)	35,950 (3.9%)	36,593 (1.8%)	37,402 (2.2%)	37,139 (-0.7%)
기타	15,067 (15.0%)	15,247 (1.2%)	15,320 (0.5%)	15,440 (0.8%)	15,572 (0.9%)

<자료 : 고용보험DB, 고용노동부>

※ 연(年)말 상시(상용+임시) 근로자 기준, 일용근로자 및 임의가입 자영업자 제외

※ 서비스업은 '도매 및 소매업', '운수 및 창고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교육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을 포함하고 있으며, 기타는 '농업, 임업 및 어업', '광업',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가구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 생산활동', '국제 및 외국기관'을 포함함.

- 경남 제조업 중 근로자 수 비중이 가장 큰 '기타 운송장비' 근로자 수가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음. 2016년과 2017년 각각 15.2%, 23.4% 큰 폭으로 감소한 데 이어 3년 연속 감소세임.

이 밖에도 근로자수 순으로 '자동차 및 트레일러'(-2.9%), '고무 및 플라스틱 제품'(-5.5%), '1차 금속'(-3.2%),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1.2%), '비금속 광물제품'(-3.1%), '섬유제품'(-3.8%) 등 대부분의 제조업의 근로자 수가 감소했음.

- 근로자 수가 증가한 제조업종은 근로자 수 순으로 '기타 기계 및 장비'+(0.4%), '금속가공제품'+(0.7%), '전기장비'+(1.9%), '식료품'+(1.5%), '전자부품·통신장비 등'+(2.8%), '의료·정밀기기 등'+(1.1%), '펄프·종이제품'+(1.3%). '기타제품'+(8.2%) 등임.

경남 제조업 업종별 피보험자 수 동향

(단위 : 명)

	2014	2015	2016	2017	2018
<b>제조업</b>	379,377 (2.7%)	381,214 (0.5%)	363,098 (-4.8%)	338,844 (-6.7%)	334,857 (-1.2%)
기타 운송장비	105,200 (9.0%)	108,985 (3.6%)	92,402 (-15.2%)	70,739 (-23.4%)	67,626 (-4.4%)
기타 기계 및 장비	65,851 (2.2%)	65,063 (-1.2%)	64,039 (-1.6%)	64,265 (0.4%)	64,520 (0.4%)
자동차 및 트레일러	35,217 (-2.3%)	36,094 (2.5%)	36,990 (2.5%)	36,640 (-0.9%)	35,584 (-2.9%)
금속가공제품 (기계 및 가구 제외)	38,596 (4.4%)	38,165 (-1.1%)	35,974 (-5.7%)	34,472 (-4.2%)	34,714 (0.7%)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25,026 (0.9%)	24,610 (-1.7%)	24,891 (1.1%)	24,177 (-2.9%)	22,857 (-5.5%)
전기장비	22,143 (-5.0%)	22,010 (-0.6%)	22,092 (0.4%)	21,353 (-3.3%)	21,750 (1.9%)
1차 금속	18,810 (-3.6%)	18,098 (-3.8%)	17,522 (-3.2%)	17,142 (-2.2%)	16,589 (-3.2%)
식료품	14,376 (5.6%)	14,566 (1.3%)	14,900 (2.3%)	15,381 (3.2%)	15,609 (1.5%)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10,062 (-7.2%)	9,419 (-6.4%)	9,375 (-0.5%)	9,509 (1.4%)	9,779 (2.8%)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의약품 제외)	8,960 (4.5%)	8,941 (-0.2%)	9,197 (2.9%)	9,270 (0.8%)	9,159 (-1.2%)
비금속 광물제품	7,592 (-4.7%)	7,412 (-2.4%)	7,489 (1.0%)	7,535 (0.6%)	7,304 (-3.1%)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5,375 (3.0%)	5,341 (-0.6%)	5,492 (2.8%)	5,504 (0.2%)	5,562 (1.1%)
섬유제품 (의복제외)	5,744 (8.1%)	5,841 (1.7%)	5,521 (-5.5%)	5,420 (-1.8%)	5,212 (-3.8%)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4,111 (1.5%)	4,126 (0.4%)	3,909 (-5.3%)	3,976 (1.7%)	4,029 (1.3%)
기타제품	12,314 (1.7%)	12,543 (1.9%)	13,305 (6.1%)	13,461 (1.2%)	14,563 (8.2%)

<자료 : 고용보험DB, 고용노동부>

※ 연(年)말 상시(상용+임시) 근로자 기준, 일용근로자 및 임의가입 자영업자 제외

※ 기타 제조업은 '목재 및 나무제품(가구제외)',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가죽, 가방 및 신발', '음료', '가구', '의복, 의복 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코코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담배' 등을 포함함.

경남 서비스업의 고용보험 피보험자 추이

(단위 : 명)

	2014	2015	2016	2017	2018
서비스업	298,414 (5.6%)	321,837 (7.8%)	332,703 (3.4%)	343,153 (3.1%)	369,549 (7.7%)
보건업 및 사회복지	87,475 (5.4%)	77,042 (-11.9%)	88,153 (14.4%)	93,370 (5.9%)	99,545 (6.6%)
도매 및 소매업	37,960 (8.4%)	33,294 (-12.3%)	40,646 (22.1%)	41,601 (2.3%)	43,609 (4.8%)
전문, 과학 및 기술	31,101 (11.1%)	25,419 (-18.3%)	31,578 (24.2%)	31,273 (-1.0%)	31,653 (1.2%)
운수 및 창고업	26,579 (2.2%)	25,400 (-4.4%)	26,325 (3.6%)	26,219 (-0.4%)	26,082 (-0.5%)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23,835 (1.3%)	22,153 (-7.1%)	24,628 (11.2%)	25,976 (5.5%)	24,636 (-5.2%)
교육	22,579 (2.1%)	22,385 (-0.9%)	22,573 (0.8%)	23,076 (2.2%)	25,675 (11.3%)
부동산업	19,726 (63.2%)	11,522 (-41.6%)	22,591 (96.1%)	22,797 (0.9%)	26,026 (14.2%)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14,492 (-8.0%)	16,353 (12.8%)	15,269 (-6.6%)	16,579 (8.6%)	24,386 (47.1%)
숙박 및 음식점업	17,189 (22.5%)	11,910 (-30.7%)	19,506 (63.8%)	20,789 (6.6%)	23,808 (14.5%)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15,463 (7.4%)	13,428 (-13.2%)	15,344 (14.3%)	14,951 (-2.6%)	16,146 (8.0%)
금융 및 보험업	15,401 (2.9%)	13,966 (-9.3%)	15,377 (10.1%)	15,319 (-0.4%)	15,918 (3.9%)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5,770 (7.4%)	5,088 (-11.8%)	6,372 (25.2%)	6,577 (3.2%)	7,231 (9.9%)
정보통신업	4,267 (3.5%)	4,599 (7.8%)	4,341 (-5.6%)	4,626 (6.6%)	4,834 (4.5%)

<자료 : 고용보험DB, 고용노동부>

※ 연(年)말 상시(상용+임시) 근로자 기준, 일용근로자 및 임의가입 자영업자 제외

- 제조업과 반대로 서비스업은 업종별로 대부분의 근로자 수가 증가했음.  
가장 눈에 띄게 증가한 업종은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이 전년 대비 47.1%로 큰 폭으로 증가했음. 지난 해 말 정부 주도의 공공부문 일자리 사업의 영향에 따른 것임. 이 밖에도 ‘보건업 및 사회복지’(+6.6%), ‘교육’(+11.3%) 등 공공부문 근로자 수가 큰 폭으로 증가했음.
- 공공부문을 제외하더라도 ‘도매 및 소매업’(+4.8%), ‘전문·과학 및 기술’(+1.2%), ‘부동산업’(+14.2%), ‘숙박 및 음식점업’(+14.5%), ‘금융 및 보험업’(+3.9%), ‘협회 및 단체·수리 및 기타 개인’(+8.0%),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9.9%), ‘정보통신업’(+4.5%) 등 대부분의 서비스업 근로자 수가 증가한 모습임.
- 반대로 ‘운수 및 창고업’(-0.5%), ‘사업시설 관리·사업지원 및 임대’(-5.2%)는 근로자 수가 감소했음. 이 중 ‘사업시설 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의 근로자 수 감소는 경비, 청소 등 용역 서비스의 비중이 높아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영향이 가장 큰 것으로 풀이됨.
- 정부 공공부문 일자리 사업에 따른 영향은 연령별 근로자 수에서도 드러나고 있음. 경남 연령별 근로자 수를 보면, ‘60~69세’ 근로자 수가 전년 대비 15.9% 오른 7만 4,120명, ‘70세 이상’ 근로자 수는 16.3% 오른 1만 2,487명임. 기대 수명의 증가로 일자리를 찾는 장년층이 증가하고 있는 것도 주된 요인이며, 이들은 많은 부분 정부가 제공하는 공공 일자리에서 일거리를 찾은 것으로 풀이됨.
- 하지만 50세 이하 근로자 수는 줄거나 소폭 증가에 그쳤음. 특히 ‘30~39세’ 근로자 수는 1.3% 준 18만 320명을 기록해 3년 연속 감소한 모습이며, ‘20~29세’ 근로자 수는 2016년부터 2년 연속 감소 후 2018년 1.7% 증가했음. 장년 근로자 수는 큰 폭으로 증가하지만, 청년 근로자 수는 좀처럼 증가하지 못하고 있음.  
전반적으로 50세 이상 근로자 수만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어, 경남 고용시장의 고령화가 급속도록 진행되고 있음.
- 전체 근로자 수 증가에는 여성 근로자 수 증가가 큰 몫을 차지했음. 전년 대

비 남성 근로자 수는 1.1% 증가했지만, 여성 근로자 수는 6.0% 증가했음. 여성 근로자 수는 꾸준히 증가추세에 있음. 남녀 비율로 본다면 5년 전인 2014년 남녀 비율이 '66:34'에서, 2018년 '62:38'로 비중 차이가 상당부분 줄었음.

경남 연령별, 성별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추이

(단위 : 명)

	2014	2015	2016	2017	2018
<b>합계</b>	727,471 (3.9%)	754,248 (3.7%)	747,714 (-0.9%)	735,839 (-1.6%)	757,117 (2.9%)
남	479,265	493,650	482,301	464,997	470,064
여	248,206	260,598	265,413	270,842	287,053
29세 이하	113,955 (1.6%)	115,374 (1.2%)	107,734 (-6.6%)	99,845 (-7.3%)	100,467 (0.6%)
남	67,155	67,762	61,944	56,228	55,954
여	46,800	47,612	45,790	43,617	44,513
30~39세	203,077 (-0.1%)	204,172 (0.5%)	194,773 (-4.6%)	182,774 (-6.2%)	180,320 (-1.3%)
남	143,459	143,819	135,437	124,060	119,883
여	59,618	60,353	59,336	58,714	60,437
40~49세	209,129 (4.1%)	215,311 (3.0%)	214,269 (-0.5%)	208,656 (-2.6%)	208,974 (0.2%)
남	134,182	137,558	135,097	129,490	128,352
여	74,947	77,753	79,172	79,166	80,622
50~59세	148,558 (7.1%)	158,767 (6.9%)	164,515 (3.6%)	169,862 (3.3%)	180,749 (6.4%)
남	97,314	103,087	104,757	105,451	109,610
여	51,244	55,680	59,758	64,411	71,139
60~69세	44,097 (14.3%)	51,125 (15.9%)	57,207 (11.9%)	63,963 (11.8%)	74,120 (15.9%)
남	31,225	35,262	38,596	42,250	47,413
여	12,872	15,863	18,611	21,713	26,707
70세 이상	8,649 (38.2%)	9,499 (9.8%)	9,216 (-3.0%)	10,739 (16.5%)	12,487 (16.3%)
남	5,925	6,162	6,470	7,518	8,852
여	2,724	3,337	2,746	3,221	3,635
분류불능	6	0	0	0	0
남	5	0	0	0	0
여	1	0	0	0	0

<자료 : 고용보험DB, 고용노동부>

\* 연(年)말 상시(상용+임시) 근로자 기준, 일용근로자 및 임의가입 자영업자 제외

## 2. 경상남도 고용보험 자격 취득·상실 현황

- 2018년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 취득자는 39만 8,036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1% 증가했고, 퇴직자 수는 37만 2,618명으로 6.5% 감소해, 2015년 이후 3년 만에 취득자 수가 상실자 수를 상회했음.
- 전체 업종별 근로자 수에서도 나타났듯이 업종별 취업자 수도 제조업과 서비스업에 큰 차이를 보였음. 2018년 제조업 취업자 수는 13만 7,028명으로 전년 대비 6.5% 감소했음. 이는 2015년 이후 4년 연속한 감소한 수치임. 퇴직자 수는 14만 1,853명으로 전년 대비 21.8%로 줄었으며, 2년 연속 감소했음.
- 반대로 서비스업 취업자 수는 전년 대비 13.4% 증가한 23만 2,069명, 퇴직자 수는 7.4% 증가한 20만 2,835명을 기록했음.

업종별 고용보험 취득·상실자 수

(단위 :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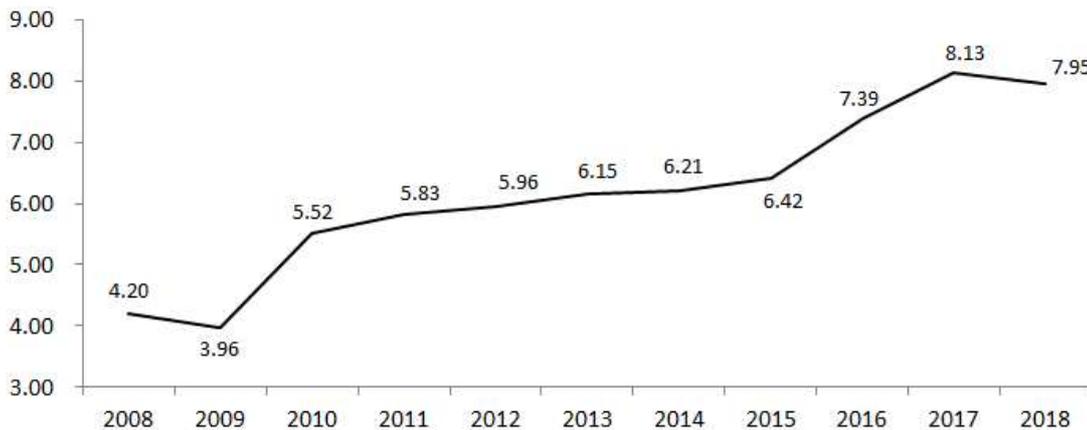
		2014	2015	2016	2017	2018
경상남도	취득	411,367 (7.8%)	424,102 (3.1%)	422,501 (-0.4%)	393,863 (-6.8%)	398,036 (1.1%)
	상실	378,698 (7.0%)	395,996 (4.6%)	423,316 (6.9%)	398,667 (-5.8%)	372,618 (-6.5%)
제조업	취득	196,895 (9.1%)	193,145 (-1.9%)	186,986 (-3.2%)	159,085 (-14.9%)	137,028 (-13.9%)
	상실	184,270 (8.8%)	187,449 (1.7%)	202,088 (7.8%)	180,970 (-10.4%)	141,583 (-21.8%)
서비스업	취득	187,842 (7.0%)	201,069 (7.0%)	205,176 (2.0%)	204,597 (-0.3%)	232,069 (13.4%)
	상실	168,390 (5.3%)	180,840 (7.4%)	192,494 (6.4%)	188,946 (-1.8%)	202,835 (7.4%)
건설업	취득	18,117 (-3.0%)	20,469 (13.0%)	20,770 (1.5%)	21,258 (2.3%)	21,142 (-0.5%)
	상실	18,151 (-1.3%)	18,723 (3.2%)	19,376 (3.5%)	20,042 (3.4%)	20,659 (3.1%)
기타	취득	8,513 (21.0%)	9,419 (10.6%)	9,569 (1.6%)	8,923 (-6.8%)	7,797 (-12.6%)
	상실	7,887 (23.8%)	8,984 (13.9%)	9,358 (4.2%)	8,709 (-6.9%)	7,541 (-13.4%)

<자료 : 고용보험DB, 고용노동부>

- 비교적 장기간, 양질의 일자리 성격이 강한 제조업의 취업과 퇴직 모두 감소하는 추세가 뚜렷해 고용시장이 경직되고 있음. 이는 고용 유연성이 낮은 제조업의 특성 상 신규 고용에 대한 수요는 감소하는 가운데, 경기침체에 따른 중장년층의 이직 성향도 크게 줄어든데 따른 것으로 풀이됨.
- 취업자 중 신규취업자는 2017년 큰 폭의 감소(-14.4%) 이후 2018년에는 3.1% 증가한 4만 4,452명을 기록했다. 재취업(경력 이동) 근로자 수는 0.8% 증가한 35만 3,584명임. 여전히 경력직 취업이 월등히 많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신규취득자 대비 경력 취득자 수의 배수는 7.95배로 나타났음.

고용보험 신규 취득자 대비 경력 취득자 수의 배수 추이

(단위 : 배)



<자료 : 고용보험DB, 고용노동부>

- 신규 취업자 수가 전년 대비 1.1% 증가한 가운데, 청년 취업이라 할 수 있는 20대와 30대 신규취업이 각각 5.0%, 2.7% 증가했음. 60대와 70대 신규취업 증가율이 각각 30.4%, 46.9%로 크게 증가한 것은 정부 공공일자리 사업의 영향임.
- 경력직 재취업은 50대 이상을 제외한 나머지 연령대에서 감소한 모습임. 조선업 구조조정 등 경남 고용쇼크가 본격화한 2017년 이후 이직 수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보임.  
특히 30대 재취업 수가 2017년 11.6% 감소한 8만 4,142명, 2018년 6.8% 감소한 7만 8,461명으로 큰 폭으로 감소했음.

연령별 취득·상실자 수

(단위 : 명)

취득구분별 연령	2014	2015	2016	2017	2018
취업	411,367 (7.8%)	424,102 (3.1%)	422,501 (-0.4%)	393,863 (-6.8%)	398,036 (1.1%)
신규취업	57,032 (6.8%)	57,138 (0.2%)	50,376 (-11.8%)	43,130 (-14.4%)	44,452 (3.1%)
19세 이하	9,920 (21.0%)	10,318 (4.0%)	9,367 (-9.2%)	7,447 (-20.5%)	5,988 (-19.6%)
20~29세	24,400 (1.5%)	23,728 (-2.8%)	22,013 (-7.2%)	19,040 (-13.5%)	19,987 (5.0%)
30~39세	4,019 (-5.7%)	3,663 (-8.9%)	3,340 (-8.8%)	2,937 (-12.1%)	3,016 (2.7%)
40~49세	6,550 (-3.3%)	5,767 (-12.0%)	5,057 (-12.3%)	3,829 (-24.3%)	3,742 (-2.3%)
50~59세	6,773 (1.7%)	6,677 (-1.4%)	6,522 (-2.3%)	5,710 (-12.5%)	6,147 (7.7%)
60~69세	2,913 (21.9%)	3,181 (9.2%)	3,005 (-5.5%)	3,336 (11.0%)	4,351 (30.4%)
70세 이상	2,455 (123.8%)	3,804 (54.9%)	1,072 (-71.8%)	831 (-22.5%)	1,221 (46.9%)
재취업	354,335 (7.9%)	366,964 (3.6%)	372,125 (1.4%)	350,733 (-5.7%)	353,584 (0.8%)
19세 이하	3,452 (20.6%)	3,995 (15.7%)	3,779 (-5.4%)	3,199 (-15.3%)	2,311 (-27.8%)
20~29세	73,626 (7.5%)	75,054 (1.9%)	73,330 (-2.3%)	66,496 (-9.3%)	66,227 (-0.4%)
30~39세	98,608 (3.4%)	95,785 (-2.9%)	95,154 (-0.7%)	84,142 (-11.6%)	78,461 (-6.8%)
40~49세	89,410 (9.0%)	92,303 (3.2%)	95,266 (3.2%)	88,475 (-7.1%)	86,606 (-2.1%)
50~59세	59,556 (9.9%)	63,517 (6.7%)	67,448 (6.2%)	67,676 (0.3%)	71,657 (5.9%)
60~69세	24,869 (13.9%)	28,710 (15.4%)	31,074 (8.2%)	34,271 (10.3%)	41,321 (20.6%)
70세 이상	4,814 (33.7%)	7,600 (57.9%)	6,074 (-20.1%)	6,474 (6.6%)	7,001 (8.1%)
퇴직	378,698 (7.0%)	395,996 (4.6%)	423,316 (6.9%)	398,667 (-5.8%)	372,618 (-6.5%)
19세 이하	10,089 (23.1%)	10,722 (6.3%)	10,571 (-1.4%)	9,110 (-13.8%)	6,932 (-23.9%)
20~29세	81,127 (5.4%)	81,861 (0.9%)	87,776 (7.2%)	79,090 (-9.9%)	72,204 (-8.7%)
30~39세	99,516 (2.6%)	97,152 (-2.4%)	104,200 (7.3%)	93,128 (-10.6%)	79,165 (-15.0%)
40~49세	89,954 (7.2%)	92,742 (3.1%)	100,725 (8.6%)	95,025 (-5.7%)	86,334 (-9.1%)
50~59세	63,308 (8.4%)	68,602 (8.4%)	75,075 (9.4%)	74,611 (-0.6%)	73,774 (-1.1%)
60~69세	28,352 (15.3%)	32,877 (16.0%)	35,887 (9.2%)	39,520 (10.1%)	45,127 (14.2%)
70세 이상	6,352 (29.9%)	12,040 (89.5%)	9,082 (-24.6%)	8,183 (-9.9%)	9,082 (11.0%)

※ 행정통계를 확정된 이후 취득·상실에 대한 수정신고 등이 있을 수 있어, '전분기 피보험자 + 당분기 취득자 - 당분기 상실자'가 당월 피보험자와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자료 : 고용보험DB, 고용노동부>

- 경남의 실업급여 수급자 수가 처음으로 10만 명을 넘어섰음. 2018년 경남 실업급여 수급자 수는 10만 767명으로 전년 대비 5.1% 증가했음. 연령별로는 50대 실업급여자가 가장 많았고, 증가율은 40대가 가장 높았음.

경남 연령별 실업급여 수급자 수

(단위 : 명)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합 계	76,343 (1.3%)	79,110 (3.6%)	87,582 (10.7%)	95,908 (9.5%)	100,767 (5.1%)
29세 이하	10,698 (-4.3%)	10,087 (-5.7%)	11,333 (12.4%)	12,062 (6.4%)	12,273 (1.7%)
30~39세	18,215 (-5.6%)	17,820 (-2.2%)	20,197 (13.3%)	21,972 (8.8%)	21,493 (-2.2%)
40~49세	17,741 (-0.3%)	18,133 (2.2%)	19,658 (8.4%)	22,190 (12.9%)	23,480 (5.8%)
50~59세	19,855 (4.9%)	21,278 (7.2%)	22,862 (7.4%)	24,192 (5.8%)	25,446 (5.2%)
60세 이상	9,833 (20.5%)	11,785 (19.9%)	13,517 (14.7%)	15,489 (14.6%)	18,073 (16.7%)

※ 분류불능 제외

<자료 : 고용보험DB, 고용노동부>

- 경남 실업급여 수급자 수 증가는 서비스업과 건설업이 가장 많았음. 서비스업의 경우 전년 대비 4,821명 증가했고, 건설업은 2,966명 늘었음. 반면 3년 연속 증가를 보였던 제조업 실업급여 수급자 수는 전년 대비 6.4% 감소했음.

경남 업종별 실업급여 수급자 수

(단위 : 명)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합 계	76,343 (1.3%)	79,110 (3.6%)	87,582 (10.7%)	95,908 (9.5%)	100,767 (5.1%)
제조업	22,596 (-6.7%)	25,440 (12.6%)	32,549 (27.9%)	37,926 (16.5%)	35,502 (-6.4%)
건설업	7,455 (3.1%)	6,763 (-9.3%)	6,066 (-10.3%)	6,090 (0.4%)	9,056 (48.7%)
서비스업	43,309 (3.6%)	43,759 (1.0%)	45,876 (4.8%)	48,987 (6.8%)	53,808 (9.8%)
기타	2,980 (41.4%)	3,143 (5.5%)	3,087 (-1.8%)	2,905 (-5.9%)	2,401 (-17.3%)

<자료 : 고용보험DB, 고용노동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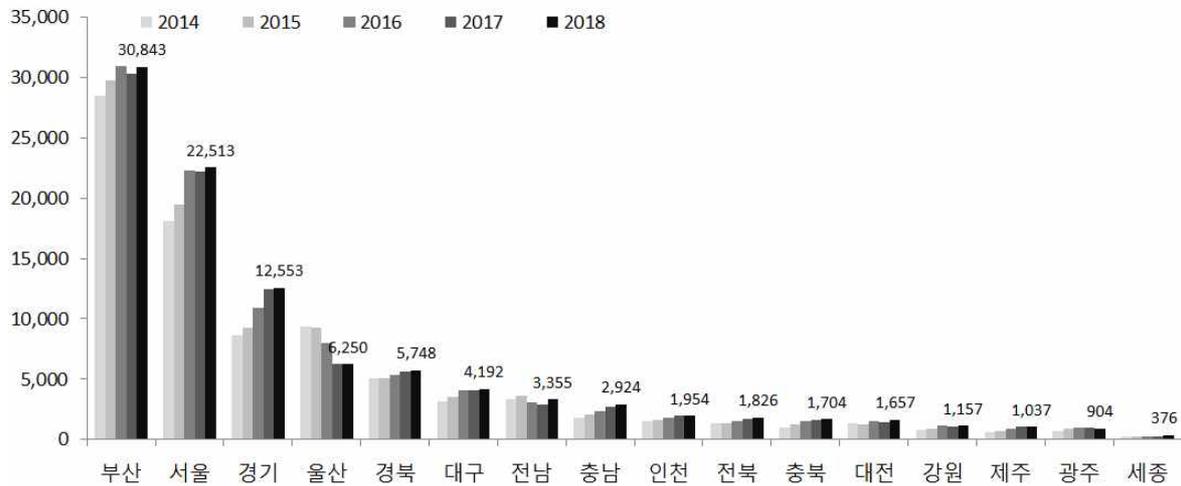
### 3. 경상남도 고용보험 피보험자 경력이동 현황

○ 2018년 한 해 동안 경남에서 이직한 피보험자(이직) 수는 36만 1,789명임. 이 중 경남에서 경남 내로 이직한 피보험자는 26만 2,796명이며, 나머지 9만 8,993명은 타 지역으로 이동했음.

이 중 부산시로 3만 843명이 이동해 가장 많았고, 서울시 2만 2,513명, 경기도 1만 2,553명, 울산시 6,250명, 경상북도 5,748명, 대구시 4,192명 순으로 대부분 인근 광역단체와 수도권으로 이동했음.

경남지역 근로자 타 지역 이동 동향(2014~2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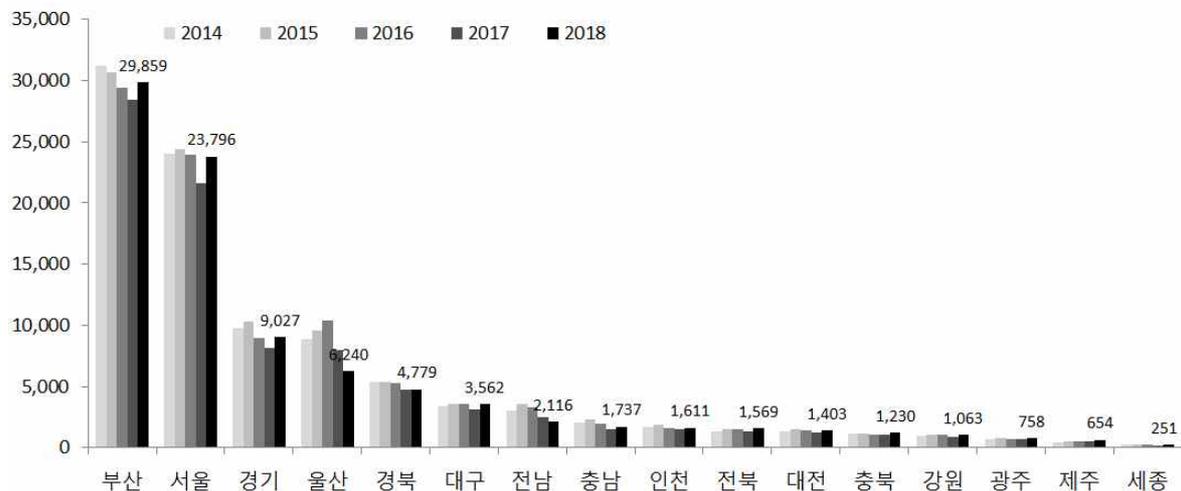
(단위 : 명)



<자료 : 고용보험DB, 고용노동부>

타 지역 근로자 경남 이동 현황(2014~2018)

(단위 : 명)



<자료 : 고용보험DB, 고용노동부>

- 반대로 경남으로 이직한 피보험자(이직) 수는 35만 2,453명임. 이 중 경남에서 경남 내로 이직한 피보험자는 26만 2,796명이며, 나머지는 부산시(2만 9,859명), 서울시(2만 3,796명), 경기도(9,027명), 울산광역시(6,240명) 등 8만 9,657명은 타 지역으로부터 이동해 왔음.
- 경남에서 타 지역으로 유출된 근로자 수(고용보험 가입자에 한함)와 경남으로 유입된 근로자 수의 차이(순유출입)를 살펴보면, 2016년 이후 순유입에서 순유출로 추세가 변화하였음. 경남이 2016년 이후 3년째 일자리를 찾아드는 지역에서 타 지역으로 일자리를 찾아 떠나는 지역으로 변화했음을 시사하고 있음. 2018년의 경우 경기도로 3,526명, 전라남도 1,239명, 충청남도 1,187명, 부산시 984명 순으로 순유출 하였으며, 서울시를 제외한 전 시·도로 근로자의 순유출을 보였음. 순유입이 이루어진 지역은 서울시가 유일하며, 1,283명의 근로자가 경남으로 순유입 했음.

경남 근로자 타 지역 순유출입(경남유출-경남유입)

(단위 : 명)

	2014	2015	2016	2017	2018
부산	-2,707	-908	1,538	1,863	984
서울	-5,887	-4,917	-1,688	572	-1,283
경기	-1,165	-1,044	1,922	4,305	3,526
울산	506	-261	-2,433	-1,628	10
경북	-275	-257	143	835	969
대구	-155	-76	516	898	630
전남	326	38	-184	337	1,239
충남	-212	-221	451	1,169	1,187
인천	-136	-256	236	477	343
전북	-21	-135	-19	368	257
충북	-301	-266	105	393	301
대전	173	112	413	439	427
강원	-155	-162	108	234	94
제주	-112	-131	187	324	279
광주	227	337	438	453	250
세종	48	11	-7	106	125
<b>전체</b>	<b>-9,857</b>	<b>-8,157</b>	<b>1,687</b>	<b>11,133</b>	<b>9,336</b>

※ 분류불능 제외

<자료 : 고용보험DB, 고용노동부>

2018년 전국 지역 간 경력이동 피보험자 현황

(단위 : 명)

후 전	경남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제주	합계
경남	262,796	22,513	30,843	4,192	1,954	904	1,657	6,250	376	12,553	1,157	1,704	2,924	1,826	3,355	5,748	1,037	361,789
서울	23,796	1,407,648	33,398	19,138	56,765	12,594	26,173	9,557	5,495	329,649	20,957	19,965	26,054	14,157	12,454	18,675	11,901	2,048,376
부산	29,859	28,951	250,175	2,910	1,936	758	1,951	5,751	341	10,581	1,074	1,075	1,755	921	1,986	4,123	1,364	345,511
대구	3,562	16,727	2,420	157,186	1,132	551	1,610	1,219	237	7,035	757	987	1,139	538	562	23,148	466	219,276
인천	1,611	47,373	1,598	851	175,904	929	1,370	559	430	46,014	1,755	1,905	3,742	1,392	1,357	1,414	931	289,135
광주	758	10,256	622	408	974	96,534	1,825	231	304	5,483	512	620	1,162	2,497	15,903	526	459	139,074
대전	1,403	20,520	1,509	1,329	1,341	1,336	94,030	519	4,443	10,214	793	4,917	8,437	1,979	946	1,432	488	155,636
울산	6,240	8,608	6,450	1,632	729	294	553	88,518	190	4,929	591	795	1,265	562	1,045	5,472	334	128,207
세종	251	3,460	290	178	306	264	2,752	91	11,335	2,540	194	1,832	2,113	314	225	225	77	26,447
경기	9,027	273,754	8,611	5,961	47,082	5,576	9,195	3,406	2,737	871,897	12,380	15,359	24,934	7,582	7,137	9,656	4,000	1,318,294
강원	1,063	18,272	878	684	1,653	393	1,110	550	261	12,144	113,714	2,217	1,437	711	606	1,588	555	157,836
충북	1,230	18,806	852	793	1,884	514	4,600	496	2,034	15,532	2,079	123,258	5,007	1,134	804	1,965	357	181,345
충남	1,737	22,200	1,433	990	3,645	1,148	8,256	854	3,233	25,251	1,467	5,051	146,798	3,550	1,795	2,327	492	230,227
전북	1,569	11,522	805	574	1,362	2,360	2,258	695	443	7,936	705	1,303	3,814	134,644	3,039	985	414	174,428
전남	2,116	9,613	1,497	451	1,150	15,106	980	747	244	6,623	615	804	1,731	2,661	120,369	1,376	618	166,701
경북	4,779	17,393	3,686	23,748	1,669	628	1,616	4,625	332	11,046	1,721	2,437	2,761	969	1,466	183,941	566	263,383
제주	654	8,690	1,037	404	950	365	309	173	146	3,061	407	288	391	299	494	380	51,444	69,492
분류 불능	2	15	2	1	3	16	1	2		8	2	1	5	1	4	4	4	71
합계	352,453	1,946,321	346,106	221,430	300,439	140,270	160,246	124,243	32,581	1,382,496	160,880	184,518	235,469	175,737	173,547	262,985	75,507	6,275,228

<자료 : 고용보험DB, 고용노동부>

2018년 경남으로 이직한 산업별 피보험자 현황

(단위 : 명)

후 전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합계	
A	2,797	1	297	3	32	95	120	26	42	2	8	23	68	55	374	8	130	22	26	-	-	4,129	
B	5	112	73		11	59	29	5	3			2	4	4	9	1	7		2	-	-	326	
C	442	89	97,178	86	616	2,413	5,951	1,867	3,175	460	277	1,109	2,259	3,743	2,952	810	3,652	579	1,143	1	2	128,804	
D	3	-	80	132	1	50	20	9	6	4	16	65	78	17	26	7	8	2	5	-	-	529	
E	22	5	372	4	525	96	138	52	23	2	5	46	32	68	157	10	56	12	43	-	-	1,668	
F	107	38	2,535	44	93	13,189	874	272	249	66	20	474	672	399	645	98	393	87	125	1	-	20,381	
G	153	23	6,119	52	191	921	8,947	655	1,505	180	156	384	565	826	749	407	1,867	304	504	-	-	24,508	
H	86	12	1,803	11	82	248	526	4,486	206	27	32	156	131	632	392	104	314	64	136	-	-	9,448	
I	54	1	2,602	21	32	224	1,219	186	9,012	119	77	261	338	650	510	306	1,470	335	279	1	-	17,697	
J	8		931	16	8	195	324	64	201	619	31	77	193	98	165	120	224	68	64	-	-	3,406	
K	19	1	378	6	16	66	254	39	117	19	549	125	81	74	167	58	228	32	64	-	-	2,293	
L	17	2	518	4	24	216	182	90	154	23	19	3,785	123	1,009	371	165	237	45	79	-	-	7,063	
M	60	4	2,576	29	42	672	514	102	363	108	139	300	4,075	500	377	258	417	84	137	-	2	10,759	
N	114	9	5,788	43	140	734	1,488	621	1,333	177	187	2,381	913	6,494	1,910	1,640	1,718	490	376	1	3	26,560	
O	140	4	837	55	76	167	305	94	256	74	58	331	195	353	20,165	374	1,279	205	299	-	-	25,267	
P	24	3	628	4	12	100	277	89	261	63	41	115	229	374	519	9,253	1,041	278	161	-	-	13,472	
Q	92	1	1,608	6	37	224	1,007	170	911	78	31	234	338	620	1,331	1,065	36,809	179	1,111	2	-	45,854	
R	17	3	402	3	12	79	183	39	281	28	22	76	71	130	300	115	247	1,253	83	-	-	3,344	
S	32	2	760	4	25	108	438	101	326	21	23	114	114	188	341	131	1,137	117	2,919	3	1	6,905	
T	-	-	-	-	-	-	1	-	1	-	-	-	-	1	-	-	5		2	12	-	22	
U	-	-	-	-	-	-	1	1	1	-	-	-	-	-	-	-	-	-	-	-	-	13	16
V	-	-	-	-	-	-	-	-	-	-	-	-	-	-	1	-	-	1	-	-	-		2
합계	4,192	310	125,485	523	1,975	19,856	22,798	8,968	18,426	2,070	1,691	10,088	10,479	16,235	31,461	14,930	51,239	4,157	7,558	21	21	352,453	

<자료 : 고용보험DB, 고용노동부>

- ※ A = 농업·임업 및 어업, B = 광업, C = 제조업, D =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E = 수도·하수 및 폐기물 처리·원료 재생업, F = 건설업,  
 G = 도매 및 소매업, H = 운수 및 창고업, I = 숙박 및 음식점업, J = 정보통신업, K = 금융 및 보험업, L = 부동산업, M =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N = 사업시설 관리·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O =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P = 교육 서비스업, Q =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R =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S = 협회 및 단체·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T = 가구 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 생산활동,  
 U = 국제 및 외국기관, V = 분류불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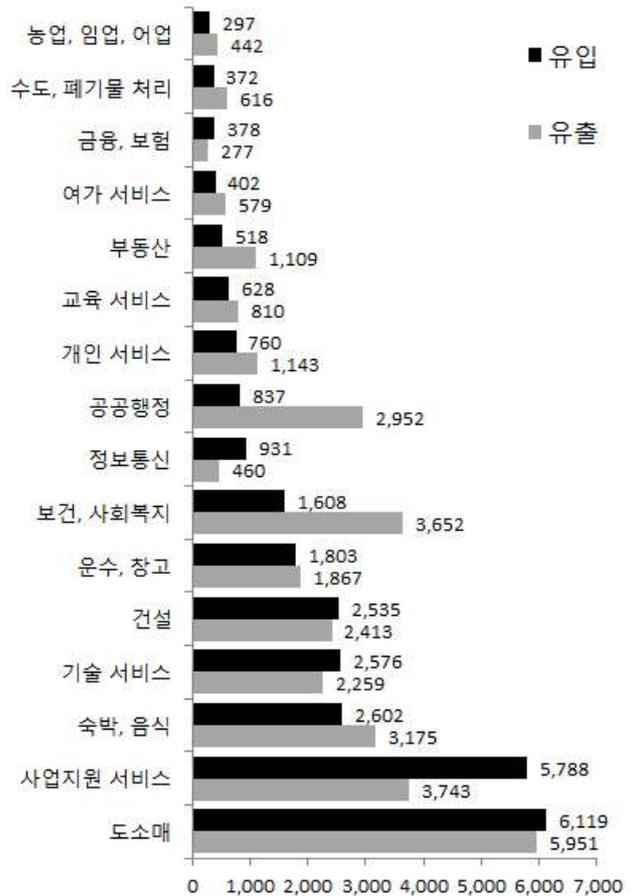
○ 2018년 한 해 동안 경남으로 이직한 피보험자의 산업별 현황을 보면, 전체 35만 2,453명 중 ‘제조업’간 이직이 9만 7,178명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건설업’ 순이었음.

기존 ‘제조업’ 근로자가 경남으로 이직한 12만 88,04명의 피보험자는 같은 ‘제조업’ 다음으로 ‘도·소매업’(5,951명), ‘사업시설 관리·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3,743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3,652명), ‘숙박 및 음식점업’(3,175명),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행정’(2,952명), ‘건설업’(2,413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2,259명) 등으로 이동했음.

반대로 제조업으로 이직해온 타 업종 피보험자는 같은 ‘제조업’ 다음으로 ‘도·소매업’(6,119명), ‘사업시설 관리·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5,788명), ‘숙박 및 음식점업’(2,602명), 건설업(2,535명) 순임.

### 2018년 제조업 피보험자의 타 산업 유출입

(단위 : 명)



<자료 : 고용보험DB, 고용노동부>